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0호 [루체 제25849호] 주체 106(2017)년 12월 6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용수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
무위원회 국장들인 김승철
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들 현지
에서 조선로동당 함강도위
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
지연군위원회 위원장 양형
철동지와 해당 부문,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
연감자가루생산공장조립도요에서 해설을
들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건
설을 직접 탐기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재,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전투적과업
을 꾀하는 심장마대에 새겨안고 한사람같
이 펼쳐나선 건설자들은 지렬한 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먼 후날에 가서
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감자가루생산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건축면적 2만 7,920㎡이고 연간
생산능력이 4,000t에 달하는 삼지연감
자가루생산공장은 감자가루생산건물, 감
자가공물생산건물, 2만t급감자저장고, 보
조건물, 로동자합숙소로 이루어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아담하고
정갈한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
보시며 멋있다고, 생산건물들이 산뜻하면
서도 깨끗하여 결보기에도 식료가공기지라
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산업시설맞이

나게 건설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종합
조종실, 감자기구직장, 제품전시실, 문화
후생시설, 과학기술보급실, 감지저장고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
을 도입하여 모든 생산공정들과 운영설비
들을 감시, 측정 및 조정하고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여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에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체제를 잘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료투입, 탈피, 세척, 선별, 절편, 더운

물처리, 팽각, 익히기, 건조, 제분, 포장에
이르기까지 가루생산공정이 고도로 자동
화, 호프론화되였는데 현대화수준이 대단
히 높다고 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격폐시킨 유리벽사이에 위생통과복도를
조성하여 생산자들이 그곳을 거쳐야만
현장에 들어갈수 있게 한것도 마음에 든
다고, 특색있다고, 무균화, 무진화가 완벽
하게 실현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제품포장도 편하게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공장에 여러가지 감자
가공품생산설비들을 추가적으로 더 놓아

감자를 가지고 가루생산은
물론 영양쌀, 편피기, 짜배
기, 국수, 우동을 비롯한 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의 특산물로 온 나
라에 소문나게 하라고 하시
였다.

문화후생시설들의 시공
도 손색없이 잘했다고 하시
면서 종업원들이 도시부럽
지 않은 생활을 누릴수 있
게 되어 좋아한다는데
지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
면서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
련히주어야 그들의 가슴마
다에 소중한 공장애를 새겨
주고 더 높은 생산실적을
낼게 할수 있다고 말씀
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
렸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
이 세계적인 감자가공공업
발전추세를 잘 알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준비

하도록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붙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감자보관에 적합한 습도도를 자동적
으로 조절할수 있는 저장고의 능력이 대단
하다고 하시면서 자동적제거와 펠트르베
아를 리용하여 생산현장까지 감자를 운반
하고있는데 무인화가 실현된 공장, 로력
절약형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종업원살림집들의 결모양이 멋있다고,
도시의 주택지구를 방불케 한다고 하시
면서 공장과 살림집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으라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이 생산정성화의 불길속에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실지 인민들에게 먹을 주는 공장으로 자기의 뜻을 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자가공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인민들이 좋아하는 가공품의 가치수를 부단히 높여나갈데 대한 문제, 생산공정들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데 대한 문제, 위생문화적환경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한알의

감자도 허실없이 제때에 가공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 설비들을 애호관리하고 점검 및 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만기중, 만부하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내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인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에서 감자가공품들이 광광 생산되면 향강명을 찾아오는 혁명전적지 탐사자들과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

을 훌륭히 건설한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가루를 생산하면 실수율을 25%까지 올릴수 있다고, 농마를 생산할때보다 실수율이 2배이상이라고, 결국 감자생산량을 지금의 2배로 끌어올리는것과 맞먹으며 감자가루로 가공품을 만들면 구수한 감자맛을 그대로 살릴수 있다고 하시면서 감자산지인 삼지연군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떠세운 감자가루생산공장을 돌아보니 기분이 좋고 흐뭇하다고 대안쪽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은 안락으로 휴잡을데가 없는 최한하고 멋있는 공장, 우리 나라 감자가공공업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자가공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 현대적인 감자가루생산공장을 이미전에 건설하여 보여드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더욱

운력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건설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확�히 밝혀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 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돛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돛기념 연구토론회가 5일 중앙로농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와 농공명일군부,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 제시된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깊이있게 해설증명한 문본들이 발표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농업근로자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는 농업근로자동맹이 항구적으로 복여되고나갈 할 강령적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봉동지께서 발표하시였다.

토론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로작은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농공명, 당의 농공명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

의 대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전 동맹의 집일성-집정일주의 화를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으로 복여되고나갈데 대한 사상은 농업근로자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혁명적인 사상이다.

전 동맹을 집일성-집정일주의 화하여야 농공명을 수행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 수행을 명도함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로작은 사회주의농촌체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농업근로자동맹을 적극 복여시키는것은 농공명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갈 때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는데서 농공명당과 민용적한 방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

중앙정치대학 강사진 김윤우동지는 《농업근로자동맹이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 동맹의 집일성-집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농공명당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세우는것이 전 동맹의 집일성-집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

보다도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농업근로자동맹명도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기 위한 근본요구이기때문이다.

전 동맹을 집일성-집정일주의 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우야 한다.

다음으로 농공명을 위대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며 자기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전 동맹을 집일성-집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사상적순결체, 수행을 중심으로 단결되고 수행의 유일적명도함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전일체로 만들어야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공명, 당의 농공명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수 있다.

농공명조직들은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신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함으로써 그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 복여할수 있게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하는 기본요구이다.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함으로써 농업전진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올려나갈수 있는 비결이 있다.

농공명조직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행복을 책임진 주인다운 입장에서 많은 농사일을 과감적으로, 알뜰하고 간지럽게 하도록 이끌어주며 분조관리제 안에서 조직담당책임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실시하여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여나갈수 있다.

농공명일군들은 대승전에 깊이 들어가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폭넓게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농사를 맡실수 있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승전투를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극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집단적경쟁열풍속에서 농공명조직들을 굳센 의지의 소유자, 처연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토론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제시하신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의 집일성-집정일주의 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적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기네 국 내 방 송 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순천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공장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 후날에 가서도 순천메기 건설된 공장을 대단히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순천메기공장을 훌륭히 일떠세

우는데 적극 이바지한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순천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과학양어의 기치를 추켜들고 년간 1200t의 메기를 무조건 생산하여 도내인민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네팔의 신문 《고르카 빠르푸라》, 인디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인디아의 인디네트통신 뉴스 오브 밀리언즈, 일본의 교토통신, 기네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로마의 인디네트통신 가세파, 루, 인디네트통신 들인 《콜라소마야 브리마》, 《메프리모르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이

쉴란드반제연단 인디네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 미국의 LPR통신과 이탈리아-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신 및 현대성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국위원회, 나이지리아에 본부활동 조선인민파의 통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디네트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발가자협회 인디네트홈페이지 《주체-네팔》, 에스빠냐 마스꼬주체사상연구소 조 인디네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출발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본들을 모시였다.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시거 6살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체코, 우간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 11월 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물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 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자리아방 총비서,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선군정치연구소 조 위원장은 김정은동지께서 시거 6살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인민들은 다름없이 방글라데시를 안고 조선혁명과 세계사주위위에 쌓아올리신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거까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고 격찬하였다.

배우신세프조선전선협회 명예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집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구현하시여 사회주의와 혁명의 전위들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다.

어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과업을 기화로 더욱 약해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박행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내신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이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 집행위원회의 인사들은 김정은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집일성동지께서 혁명하게 이끌어오신 사회주의위업, 반제사주위업은 김정은동지께서 의하여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고귀한 유산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의지와 타월한 명도에 아프리카인민들은 경탄을 표시하고 있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드라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와 에티오피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와 주체조선의 막강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 주신 비범한 사상리론가, 강철의 명장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에티오피아 집일성-집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집일성동지와 집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드림없이 이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가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 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군민련환대회 진행

우리 당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결속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만리대풍으로 솟아오른 새해의 대북간담도 프로젝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장쾌한 최성은 사회주의 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총진군데오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위치에 올려세운 막강한 힘이 탄생한 오늘날의 전인민적대경사는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총정의 선물이며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력사적대업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위대한 대승리를 경축하는 황해북도, 강원도, 량강도군민련환대회가 5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Left) and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Right)

장명 훈장김동지, 도청년동맹위원장 등이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새해의 대북간담도 프로젝트의 장쾌한 최성은 지금 온 나라를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넘치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오늘날의 대승리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 운반물에서 지니시고 핵무력강화의 장엄경기를 역력같이 헤쳐 오신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변불퇴의 로고속에 마련된 민족의 대경사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광의 땅에서 일하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혁명의 만년세보인 백두산지주 혁명적정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력사의 제1책지에 아로새겨진 삼지연군유이 새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방정훈동지가 판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혁동지, 조선인민군장령 피서복동지, 도청년동맹위원장 1비서 지성남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새해의 대북간담도 프로젝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준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이라고 격정을 미치였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영남동지가 판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호동지, 도청년동맹위원장 1비서 지성남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새해의 대북간담도 프로젝트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해준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이라고 격정을 미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부위원장 송석봉동지가 판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오정덕동지, 조선인민군

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아가 합시다.》

연설자들은 인민군장령들과 도안의 전제 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겸사용위하며 일심단결의 자세를 전진적으로 역력같이 다져나가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당조직들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행을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며 황해북도위원회, 배성강발전소를 비롯한 선형부부 로동계급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의 전열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회방직공장, 정방산공항식도공장 등 경공업부문에서 우리의 원료, 자재에 의한 인민소비품생산을 높이며 도안의 여러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으며 민족적대사변들로 촉발된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인민군장령들은 언제나 고도의 격동에서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키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인민의 행복을 노리는 침략의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축출하며 힘으로 새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장원도에서

장원도군민련환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조선로동당 장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영남동지가 판독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호동지, 조선인민군 1비서 지성남동지, 도청년동맹위원장 1비서 지성남동지가 경축연설을 하였다.

농근맹 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우의 교린적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돐 기념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가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전투적으로 꾸러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었다.

로동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을 동맹사업의 총적목적업으로 들어놓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함신하게 벌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들을 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훈련시켜준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2017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막

2017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개막되었다.

농작물종자분야, 과학농사분야, 농업화학과 생물농약분야, 수의축산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및 발표회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춘 농작물 재배에 대한 대대적인 경험발표회와 전시성공을 높이기 위한 대동적과학기술운동과 26호모범기대농운동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동운동들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의 농업정책관행에서 이룩한 지평선 성과를 보여주었다.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주동적방안인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갈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일군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괄발사하도록 고무추동한 계기로 되었다.

개막식이 5일 농업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농림수산공업부총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관계부처, 과학교육기관, 농업부서 일군들, 과학자,

농근맹 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우의 교린적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돐 기념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가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전투적으로 꾸러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었다.

로동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을 동맹사업의 총적목적업으로 들어놓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함신하게 벌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들을 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훈련시켜준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2017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막

2017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개막되었다.

농작물종자분야, 과학농사분야, 농업화학과 생물농약분야, 수의축산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및 발표회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춘 농작물 재배에 대한 대대적인 경험발표회와 전시성공을 높이기 위한 대동적과학기술운동과 26호모범기대농운동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동운동들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의 농업정책관행에서 이룩한 지평선 성과를 보여주었다.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주동적방안인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갈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일군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괄발사하도록 고무추동한 계기로 되었다.

개막식이 5일 농업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농림수산공업부총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관계부처, 과학교육기관, 농업부서 일군들, 과학자,

농근맹 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우의 교린적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돐 기념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가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전투적으로 꾸러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었다.

로동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을 동맹사업의 총적목적업으로 들어놓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함신하게 벌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들을 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훈련시켜준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2017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 개막

2017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개막되었다.

농작물종자분야, 과학농사분야, 농업화학과 생물농약분야, 수의축산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및 발표회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춘 농작물 재배에 대한 대대적인 경험발표회와 전시성공을 높이기 위한 대동적과학기술운동과 26호모범기대농운동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동운동들을 활발히 조직진행하여 당의 농업정책관행에서 이룩한 지평선 성과를 보여주었다.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주동적방안인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갈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일군들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괄발사하도록 고무추동한 계기로 되었다.

개막식이 5일 농업연구원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덕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농림수산공업부총리,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승두동지, 관계부처, 과학교육기관, 농업부서 일군들, 과학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Left) and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Right)

농근맹 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우의 교린적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발표 1돐 기념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와 농업근로자동맹사업성과전시회가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농근맹일군들의 경험발표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력사적인 로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근맹조직들을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전투적으로 꾸러나가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언급되었다.

로동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 것을 동맹사업의 총적목적업으로 들어놓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함신하게 벌며 그들의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들을 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들로 훈련시켜준다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미추종은 치욕과 죽음의 길이다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이 우리를 겨냥한 또 한차례의 도발적인 전쟁물장난소동을 벌여놓았다. 미국의 스탠스런투키들이 까미카제처럼 날아온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로 감행되고있는 이번의 연합공중훈련은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군사적 도발로서 가늠이나 할 수 없는 조선반도의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피괴들이 아직도 사대의 실각상을 깨닫지 못하고 동쪽을 헤치기 위한 의세와 《공공조각》에 대해 떠벌어대면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에 서슴없이 뛰어놀고있는 것이다. 현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지고있는 것은 대미추종에서 삼십을 맞은 남조선당국의 반역적인 처사와 메어놓고 볼 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친미공중정찰과 의세의 공포에 매달리는 것은 북남관계가 국공실화시키는 반동역적행위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주장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있다.

북남관계에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개선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친미공중정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북남관계의 극점같은 역사는 남조선당국이 의세의 공포를 강화할수록 동족사이의 분신과 대립이 격화되고 전쟁위험만 고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미추종과 공중정찰의 길로 정신없이 갈고지고있다.

남조선정권자는 한때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느니, 《미국에 이니》라고 말하곤 하였으나

한타느니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처신할것이 뉘셈을 버렸고,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고 허세에 불과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상전의 눈밖에 날까 우려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언어》를 때드는 백악관지시장이에게 발라맞으며 굴욕적인 《통행》과 반공화국제방을 자주적방위라는 강화를 애걸한것뿐이다. 피괴들은 《싸드》배치를 비롯하여 백악관 우두머리가 요구하는것이러던지 어떤 강도적인것이러던지 겁서 받아붙였으며 미핵정찰사관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동쪽을 헤치기 위한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남조선군을 동쪽으로 상전의 편화하고, 대아시아전략의 전초기지로 내방하고있다. 이것은 피괴들에게서 자주적방위라는 것은 표본만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결, 북남관계개선에 역행하는 친미공중정찰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미국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자세는 친미보수세당을 파멸시킨 초분당령에 대한 추악한 반성행위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치마두를 대걸광쟁이인 박근혁역도를 《정변》의 자리에서 몰아내려 온민들의 요구가 실현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대는 허물어지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를 《초분정권》으로 자칭하고 적역정신에 대해선 도 끝날 말하고있지만 대미추종과 동맹정세에서는 피괴보수세당과 조공도 다름이 없다. 친 피괴정권세력이 트림

프의 권력폭언에 박수를 보내면서 상전이 불고나온 사상 최악의 대조선정세를 모방하여 《초강도제제압박》에 대해 고이대고있는 것은 친미사대와 의세의존에 피눈이 되어 남편 리명박, 박근혁역적정세를 쫓아내는 대국민적행위이다.

현 북남관계의 파국은 선행한 보수 《정권》들의 동맹대결정세를 답습하면서 동쪽을 헤치며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제방과 군사적도발소동에 미쳐남편 피괴당국의 반민족적행위를 필연적행위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친미공중정찰에 계속 매달리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라도 과격정세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주성도 정치적주장도 없이 오직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스스로 제 운명을 망치는 어리석은 것이다.

피괴들은 그 누구의 《완전과제》와 《질병》에 대해 미친개미처럼 짓어낸 클라리산에게 이양을 떨며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제외권한》의 따위를 붙이면서 히스테리적인 전쟁행위를 벌이고있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어 반공화국제방에 피눈이 되어 남침으로써 제존으로 제존을 제하고있다. 피괴당국은 미국의 《레퍼》 주장에 무리대고 동조하며 반공화국제방과 군사적대결소동에 광분할수록 더욱더 수습할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각종 전략사관들을 투입하면서 전쟁연습을 펼치는데 피괴는 결코 피괴들을 위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피괴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약속한 바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전략적본능에 따른것이다. 외신들이 트림프를 합력해서 비호하면서 이 수레노가 남조선에서 저들의 리익을 취

로 실현하기 위해 그 무엇도 꺼리지 않을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원래 피괴들에게 하나를 주고 열백을 빼앗아내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며 그것은 이제도 오늘날 달라질수 없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안보》문제 등을 구실로 피괴들에 대한 예속의 술거미를 바야코 하면서 저들의 무기를 강대하고 더 많은 돈을 강탈하려고 획책하고있다.

피괴들이 아무리 미국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피괴들은 상전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퍼주지 않으면 안될 거대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사대와 의세의존에 몰렸으면 머저리가 되고만다는 것은 바로 이런것을 두고 말하는 말이다.

대미추종은 곧 치욕과 죽음의 길이다. 피괴당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수면엔 죽어도 커서 죽지는 않는다》 이라고 노키엔 트림프의 말은 글썽이 박힌 대조선정권자라면 실현할수 있다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는것도 서슴치 않을것이다. 미국의 남강도제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미반전투쟁운동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민마주나, 대미추종이나 하는 력사의 엄숙한 참모양에서 자기의 선택을 바로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피괴당국이 지금처럼 북남관계의 진도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에 적극 추종하면서 반공화국제방과 공중에 계속 광분한다면 파멸의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철 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공모결탁

남조선피괴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의세의 공모결탁을 갈수록 거세게 부리고있다. 최근 피괴들이 《해리데드》에 대해 운운하며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보》공유화대결을 매달리고있는 것은 그대 표적시책이다.

이미 트림프와의 회담이라는데서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한 피괴들은 최근에는 미국과 인적정보와 영상 및 통신정보를 호상교환하고 정보의 질과 양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있다.

한편 피괴당국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호환정기화를 위한 긴급직통전화선도 현재의 1회선으로부터 3회선으로 늘이기로 하였다.

피괴들이 벌이고있는 미국, 일본상권들과의 정보공유화대결은 우리를 겨냥한 침략전쟁에 대한 사전준비행동으로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공모결탁행위이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피괴들의 광란적인 핵전쟁도발행동으로 말미암아 국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비롯한 약력능은 전략사관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긴급투입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이처럼 극도로 첨예한 시기에 피괴들이 미국과의 정보공유화대결을 적극 매달리고있는 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다. 정정보환이 활발해지는것은 명백히 군사정통전야의 움직임이다.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미국의 방대한 전략사관들과 침략무력이 전개되어있다.

이러한 속에 피괴들이 미국과의 정보공유화대에 미쳐남기는 것은 상전에게 추종하여 핵전쟁도발준비를 마무리하고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반민족적이며 반동일적인 망동이다.

대우기 민족적본능을 자아내는것은 피괴들이 미국을 물론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인 일본과의 정보공유화대결이 서슴없이 벌리고있는 것이다.

친 피괴정권세력이 저들이 집권전에 강하게 반대한 일본과의 군사정보호환정기화를 1년간 연장시전하여 정보공유를 위한 긴급직통전화선을 늘이려 하는것은 심나라공중들을 등에 업고서라도 동쪽을 한사코 무력으로 헤치려는 용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현실은 피괴들의 대결방기가 얼마나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피괴들이 미일상권들과 야합하여 벌리고있는 정보공유화대결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 전쟁을 위한 미국, 일본, 남조선 3각군사동맹구축의 한 고리이다.

이미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고이대고 《보다 효용적인 대응》의 간담에 일본과 남조선피괴들을 부추겨 정보공유행위를 세정하는 미국을 그것을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의 기로로 써먹으려는 주구들과 정보공유를 득과 분야를 계속 확대하여왔다.

명목적인 대미추종의식에서 사로잡힌 피괴들은 상전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동맹국의 정보공유에도 거리낌없이 나서고있다. 이것이 미국이 기도하는 3각군사동맹의 구축을 더욱 다그치고 일본반동들의 제한야욕을 부추기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의 실현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군비경쟁과 긴장정세를 조성하여 핵전쟁발발의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전국 남조선정권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쟁물결》이나, 《핵전쟁물결》이나, 《3각군사동맹발발》나 하고 떠드는 내외여론을 끌기하고 저들의 호전적본능을 가리우기 위한 서훈짜리 당면에 지나지 않았다.

피괴들은 지금 미국, 일본상권들과 공모결탁하여 침략전쟁도발의 길로 미친듯이 갈고지고 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쪽을 앞설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몰려 민족앞에 쫓겨나지 않는 피괴적인 망상은 남조선당국자들은 그대가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할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리 성 호

서울의 지하철도로동자들

파업 투쟁 전개

남조선인민대신문은 《한세상》에 의하면 민주로동조합 건설기공조현합을 비롯한 로조단체인등 7개 건설인민단체가 11월 30일 서울시청앞에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로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총로동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번저들은 단체인가 회사측과 21명의 승무원 및 기술인원보



중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하였지만 회사측은 다음해에 15명만 보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하철도로동자들이 이른바 대미추종과 맞대응으로 대응이 시달리고있다. 서울시당국이 운영을 맡은 프랑스로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

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하고있다고 단언하였다.

그 결과 판리비의 명목으로 부정부패한 성행하여 로동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을 회수하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당국에 있다고 하면서 시당국

징벌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교활한 술책

이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시당국이 지하철도 운영을 프랑스로사에 내맡기고 리을을 다 비쳐면서 지하철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있다고 단언하였다.

투쟁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은 지하철도가 시민들에게 《지옥철》이 되었고 거기서 일하는 로동자들에게도 《지옥》이라고 지적하였다.

로동자들이 기업과 금융투기업자들의 리용을 위해 장시간의 종료로에 허덕이고있고 하면서 길의본은 지하철도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리용할수 있게 하기 위해, 로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수 있게 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페기리들이 저들에게 쫓겨는 경찰수사를 막아보려고 남을 경찰고문과 반역적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박근혁역도의 집권시기 피괴정권자들이 역도년에게 수백만US\$의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사건이 후회되고 각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 사건으로 하여 남세, 리명박을 비롯한 전 피괴정권원장들이 구속되었다.

한편 리명박으로부터 10만US\$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은 《자유한국당》 의원 최정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피괴정권원장들은 정보원특수활동비제공사건에 이 당의 다른 의원들도 면무인 정황이 있다고 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속에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역도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지 서지공중활동비행행사건이 여론화되면서 그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것이 부정부패에 관한 도덕적소용의 소용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각종 부정부패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수사가 저들에게로 집중되자 위기를 느낀 《자유한국당》 페기리들이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부정유용에 대해 떠들어대며 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요구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

이와 관련하여 민주로동은 《국회》앞에서 반 《정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형식적인 로동법제정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집권자가 내놓았던 로동법제정방침과 로동시간단축정세에 정면으로 배치될뿐만아니라 로동자들에게 온갖 재앙을 들이치는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결의하였다.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남조선로동자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정당화된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팔강나고 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로동자들의 처지에서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남조선당국의 로동정책은 리명박, 박근혁 《정권》의 반민족적인 로동정책과 결코 다를바 없다. 현 남조선당국이 로동3권보장법과 로동법제정을 외면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명백히 증명해주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은 아무리 뼈저리게 일해도 법없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미운추추에 환장한 기업주들은 각종 로동악법들을 잇대고

친미주구들의 통할수 없는 열림수

최근 피괴들이 주변나라와의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빚어내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획이다. 하지만 주변나라들에 의한 세계여론을 열리던것보려는 피괴들의 알뜰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는 철두철미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을 전제하며 군사적대결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목적에 따른것이다. 여기에 조선반도의 주변나라들은 《싸드》배치를 자국의 전략적리익을 위해하는 용납 못할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남조선당국에 강경한 립장을 취해왔다.

주변나라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있는 피괴들은 《싸드》배치에 따른 그 나라의 대우조치를 어떻게 하나 철회시킴을 신심없이 그 사을을 제한하였다. 《3불1한》을 하고서도 그에 대해 미국에는 약속한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면서 쌍의존화책이라는 미명하에 반민족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며 《싸드》를 물론 《1한》 즉 《싸드》페기리들이 지반을 설치하여 그 사을을 제한하였다. 《3불1한》은 이 파정에 생겨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폭독각시에 불려한 피괴들의 이런 황다리치기 놀음이 오래갈라 만무하다. 피괴들은 주변나라와의 약속에 대해 노답대발하는 미국에 《약속한것은 아니라고 할만큼》이라고 황급히 변명하는것은 없었다. 이것은 미국상전에게 명줄을 잡혀 풀려달라 하는

1개 프데만 배치되어있다. 그

은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국제적인 반공화국살상공조를 강화하려고 하는이 되어 남조선의 피괴들이 남조선에 《싸드》페기리를 추가로 배치하려는 속심의 발로인것이다.

상전의 요구라면 똥돈든 무조건 집행해야만 하는것이 피괴들의 가한한 처지이다. 미국이 그러하고 하면 거야야 하는 피괴들이 상전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것은 불모도 명백하다.

주변나라들은 피괴들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것은 없었기라고 하다가 미국의 강박에 따라 그것을 기속으로 받아들이는 바에대 리용수을 얻어맞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피괴들이 《싸드》의 추가배치와 미국미사일방위체계장가를 반대하고 했지만 그것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없다.

《싸드》와 《SM-3》, 《PAC-3》은 미국이 아시아 대령양지역에 구축하려고 하는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이다. 피괴들이 미국으로부터 《싸드》를 배치하며 이어 북지적인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을 떠밀어 《SM-3》과 《PAC-3》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는것

1개 프데만 배치되어있다. 그

은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비위를 맞추어 국제적인 반공화국살상공조를 강화하려고 하는이 되어 남조선의 피괴들이 남조선에 《싸드》페기리를 추가로 배치하려는 속심의 발로인것이다.

상전의 요구라면 똥돈든 무조건 집행해야만 하는것이 피괴들의 가한한 처지이다. 미국이 그러하고 하면 거야야 하는 피괴들이 상전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것은 불모도 명백하다.

주변나라들은 피괴들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것은 없었기라고 하다가 미국의 강박에 따라 그것을 기속으로 받아들이는 바에대 리용수을 얻어맞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피괴들이 《싸드》의 추가배치와 미국미사일방위체계장가를 반대하고 했지만 그것을 끌어들이는 사람은 없다.

《싸드》와 《SM-3》, 《PAC-3》은 미국이 아시아 대령양지역에 구축하려고 하는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이다. 피괴들이 미국으로부터 《싸드》를 배치하며 이어 북지적인 미사일방위체계구축을 떠밀어 《SM-3》과 《PAC-3》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는것

